

어촌체험을 관광상품으로



어촌에 체험관광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생태교육 차원에서 관광을 도입한 생태관광 상품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엄 서 호 / 경기대학교 교수(관광문화 시민연대 대표)

21세기 관광의 키워드는 생태관광, 문화관광, 체험관광이다. 다시 말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각광을 받게 될 관광 유형이 바로 생태관광, 문화관광, 체험관광이라는 의미이다. 생태관광은 자연환경을 체험하는 것이며, 그리고 문화관광은 생활문화, 창조문화,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광의 키워드는 역시 체험관광이다.

관광의 원래 의미가 “빛을 본다.” 즉 “문물을 보고 배운다.”라는 의미의 觀國之光이라는 어귀에서 나왔고, 삼국시대 최치원이 지은 계원필경에서도 관광이라는 단어가 유학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진 것을 보더라도 현재와 같이 부정적 이미지의 관광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관광 유형을 농촌관광, 어촌관광, 도시관광 등 몇 개만 열거해 보더

라도 모든 분야에 다 접목이 가능할 정도로 관광에 대한 관심과 적용범위는 넓다. 최근에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문화관광진흥이 선정된 바 있듯이, 관광은 외화 획득, 우리문화의 세계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의 관광 행태는 아직도 보는 관광에만 머물러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관광상품도 체험보다는 보여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흥미와 만족감이 떨어지므로, 결국 우리 관광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본고는 체험관광이 21세기 관광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며, 체험관광을 통하여 어촌의 관광 매력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주5일제 확산에 따른 도시의 여가관광 수요를 흡수하는데 기여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어촌의

소득증대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려고 한다.

체험관광은 적극적인 참여과정에서 오감을 통해 문화, 역사,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탈일감과 성취감,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얻게 되는 선진국형 관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체험관광 개발은 소위 구슬뿌는 작업으로, 현존하고 있는 체험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을 선별하여,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연계시켜 상품화하는 과정이다.

체험관광 상품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가 다 관광과 접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기 TV 프로인「체험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듯이, 우리문화 즉 생활문화, 창조문화, 역사문화의 모든 요소가 관광이라는 모자를 쓰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체험상품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

는 것이 「관광모자론」의 입장이다. 즉 모든 부문에서 관광마인드를 가지고, 본래 하고 있는 일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여 체험을 통해 소개하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관광이라는 모자를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생각은 주5일제 근무의 확산에 따른 관광수요의 증대에 맞추어, 소규모 투자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어촌관광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접근은 관광을 본업으로 하는 관광호텔, 골프장 등의 프로페셔널 관광에 대응하여, 관광을 부업으로 하는 아마추어 관광이고, 바로 어촌관광이 지향해야될 방향이다.

한편, 어촌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관광시설을 개발할 경우 타 지역 관광개발과 다른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해양 관광자원의 특성이 다음과 같이 타 유형의 관광자원과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입지 조건상 여름 1계절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영업비수기의 발생이 우려된다. 둘째로, 역시 입지 조건상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하므로 시설개발 시 자연환경의 훼손에 크게 유의해야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환경영

향 평가 등에 의해 사업수행이 지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셋째로, 대부분의 경우 표적시장인 도시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므로 접근성이 불리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접근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기존 취락지역의 인구밀도가 산촌지역과 달리 조밀하므로 지역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관광 시설개발 참여 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로, 해양관광의 수요가 관광수요 중에서 가장 늦게 현시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촌에 관광 시설 개발을 추진할 경우 시장성 악화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촌의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프로페셔널 해양관광 시설의 개발보다는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역사전통문화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아마추어 관광의 도입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어촌에 체험관광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몇가지 들자면, 첫째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생태교육 차원에서 관광을 도입한 생태관광 상품의 개발이다. 전라남도 홍도 등 일부 도서지역의 사례가 바로 이러한 유형의 개발이 적용 가

능한 대상이다.

생태체험 관광을 통해 홍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물론 홍도의 생태적 수용력 범위 내에서의 생태적인 방문자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어촌지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체험 상품의 개발이다. 어촌지역의 풍어제 등 축제를 활용한 이벤트 상품개발이 이에 속한다. 셋째로, 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소재로 활용한 체험상품의 개발이다. 즉 민박, 낚시, 오징어 말리기, 젓 담그기 등 어촌의 생활환경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도시민이 생활체험을 하게 하기 위한 상품을 지칭한다.

끝으로 어촌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첫째로, 어촌관광이 주민 주도로 시행되어야만 지속성이 있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어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로, 어촌의 체험관광 진흥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시설위주의 투자보다는 한국형 어촌민박 유도,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어촌관광 박람회 개최, 전국의 어촌 백배 즐기기(축제, 특산물, 청정도, 먹거리 등 소개) 서적 발간, 어촌축제 평가 등 소프트웨어 위주의 투자에 눈을 돌려야 될 것이다.④